

하  
스

이

스  
쥬

한특협에 바란다(2)

## 위기와 도약,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 거는 기대

노동부 / 이상준

우리 모두는 국가 또는 사회의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 없을뿐더러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 제도도 그에 따라 보완·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공헌해 온 특수건강진단도 제도운용과정에서 표출된 크고 작은 문제점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제도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7년에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동안의 개선·보완작업을 거쳐 2000년부터 새로운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1997년의 제도개선작업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를 추가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의 그간 시행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위원회인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 조사·검토 및 2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2차 제도개선의 골격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2년초 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불거진 판정축소의혹은 걸잡을 수 없이 전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불신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동안의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제기나 제도개선요구와는 달리 제도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기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배척하고 새로운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는 위기에 까지 이르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를 매우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의학이 발전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과 요구수준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현재의 시설·장비·인력기준 위주의 특

수건강진단기관 지정제도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만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전문성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과 있습니다. 또한, 천만 근로자 시대에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250여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외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성이나 윤리성을 지도하여 제고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방문평가나 특별감독에서 전문성이나 윤리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다수의 문제점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되던 특수건강진단기술협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가 자율적인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에 창립된 것은 산업보건의 오히려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보건으로는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역력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산업보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각기 맡은 바 역할을 통해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현재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공공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보건사업을 가려내

어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떨어진 신뢰성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대표단체로써 빠르게 발전하여 타율이 아닌 자율체제로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도약하는데 일익을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와 특수건강진단기관 그리고 산업보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가 설립되어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일부 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전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과거를 부정하거나 동일시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 역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도 건전한 감시자나 비판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들이 인정하는 전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대표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특수건강진단의 전문성 및 윤리성이 회복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만족과 신뢰가 충족되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며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